

너무 쉬운 예선... 대선 가도엔 '걸림돌'

■ 새누리 박근혜 대선후보 선출과 전망

광주·전남 지지율 높이기 과제로

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0일 예상대로 압승을 거뒀다.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86.3%, 여론조사에서는 74.2%를 각각 득표했다. 박 후보의 전체 지지율은 84.0%를 기록했다.

▷박근혜 추대대회 된 전당대회= 새누리당의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2차 전당대회는 '박근혜'만을 위한 행사였다.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장 곳곳에서 박 후보에 대한 인기가 확인됐다. 임태희·박근혜·김태호·안상수·김문수(기호 순) 등 5명의 주자는 오후 2시 나란히 서서 입장했고, 행사장은 "박근혜" 연호로 메워졌다.

오후 3시55분께 김수환 경선관리위원장 박 전 위원장을 대선후보로 지명하자 전당대회장은 일순간 박수와 함성으로 뒤덮였다. 박 후보는 활짝 웃는 표정으로 다른 주자들과 함께 손을 잡아 위로 올렸다.

박 후보의 당선에 경선 초기부터 유력시되면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투표율은 지난 2007년 70.8%에 크게 못 미치는 41.2%를 기록했다.

특히 새누리당에게는 불모지와 같은 전남(24.1%)과 광주(19.4%)의 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.

▷현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내하나

=박 후보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유력 정당의 첫 여성 대통령 후보다. 따라서 오는 12월19일 대선은 여야 대결을 넘어 '남녀 대결'로 벌어질 것이 확실시된다. 야당후보로 남성만 등장했기 때문이다. 나아가 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현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된다. 또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부녀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. 박 후보는 보수층과 지역이라는 확고한 지지기반이 있어 이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.

하지만, 박 후보가 대권고지로 향하는 길에는 암초가 가득하다. 우선 40%대의 꾸준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과반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표의 확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. 또 권력을 갖고 있는 현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어 자칫 후보나 캠프 주요인사가 실수를 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.

나아가 민주당의 경선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후보단일화 등 야권의 역동적 후보 선출 과정에 밀려 지지도 추락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.

▷최고 득표율 득이 되나=이날 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역대 대선 후보 경선 역사상 최고 기록인 84.0%

다.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. 대선 가도가 '박 후보 중심'으로 잡음없이 일관성 있게 흘러갈 것'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당화 논란에 따른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. 지난 19일 박 후보 캠프 등 친박(친박근혜) 관계자들은 낮은 투표율이 박 후보의 압도적 득표율로 연결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지역구 투표소를 찾는 등 투표 독려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. 당 관계자는 "박 후보의 높은 득표율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1당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"이라며 "사랑과 논란으로 공격을 당할 것"이라고 전망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

당원 축하 인사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20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'새누리당 제18대 대선 후보자 지명 전당대회'에서 후보자로 공식 지명된 후 당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. /연광뉴스

퍼스트레이디 대역...46세 정치 입문

■ 박근혜는 누구

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고(故)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을 얻고 정치권에 입문, 성공한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으며 드디어 여당의 후보로 대권 도전에 나섰다.

그의 본격적 대권도전은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, 하지만, 2001년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하면서 대권 도전을 포기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도전으로 볼 수도 있다.

박 후보는 1952년 2월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육영수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다. 그 후 육군 소장이던 부친이 1963년 5·16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잡았고 이후 약 18년간 청와대에서 지냈다.

그의 인생에서 첫 굴곡을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고 절명했을 때였다. 이어 그는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신했다. 그는 1979년 10월26일에는 총탄에 아버지마저 잃게 된다.

박 후보는 그리고 20년 정도를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다.

그의 정치 생활은 1998년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(대구 달서)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시작됐다. 2년 후인 2000년 당 부총재로 당선되면서 지도자 반열에 섰지만 당시 이회창 전 총재



주요경력
1982~1990 육영재단 이사장
1983~현재 한국문화재단 이사장
1994~2005 광주광역시 이사장
1996~2000 제15대 국회의원, 영남대학교 이사장
1996~2000 제15대 국회의원, 국가보훈처장위원회 위원,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
1998~2002 한나라당 부총재
2000~2004 제16대 국회의원, 국회산업발전위원회 위원,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
2002~2005 제17대 국회의원, 국회보훈위원회 위원
2003 한나라당 원내총무
2003 한나라당 대선추진위원장
한나라당 대선 선대위 위원장
2004.3~2006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
2004~2008 제17대 국회의원, 국회국회위원회 위원,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,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
2008~2012.5 제18대 국회의원,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, 국회기획재정부위원회 위원
2011.12~2012.5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
2012~현재 제19대 국회의원
2012.8.20 새누리당 대선 후보 확정

와 정치 코드가 맞지 않아 결별을 선언하고, 신당(미래연합)을 창당했다. 이어 2002년 이회창 전 총재로부터 당권·대권 분리를 약속받은 후 재입당해 사실상 야권의 1인자로 등극한다. 이어 대선 패배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을 정상화시키고 각급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들여 '선거운의 여왕'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이정현 최고위원, 진영·이성현 의원이 대표주자

'불통' 이미지 벗고 포용 나설까

■ 박근혜 호남 인맥

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본격적인 대선에 돌입하면서 새누리당 불모지인 광주·전남을 어떻게 공략할지 주목된다.

우선 박 후보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호남 인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. 박 후보 호남 인맥의 대표주자로는 이정현 최고위원과 진영, 이성현 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.

꼭성 출신인 이정현 의원은 박 후보의 대변인을 지냈고,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광주 서구에 출마해 40%에

가까운 득표율을 올리며 정당 지지도를 끌어올린 인물이다. 특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성과 등으로 '호남 예산 지킴이'라는 별명까지 얻는 등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의 가장 든든한 '호남 지원군'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의원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, 박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.

지난 2007년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아 활동했고, 지금은 30만 명 규모의 국민희망포럼을 이끄는 이성현 의원은 영광 출신이다. 또한, 지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등원해 당 대변인을 맡고 있

는 이상원 의원에 합류 출신이다. 이 밖에 지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주영순(목포), 김정록(화순), 신경림(부안) 의원 등도 박 후보의 호남 인맥으로 분류되고 있다.

박 후보의 캠프 핵심 브레인에도 호남 인맥이 포진돼 있다.

경제민주화 개념과 보수 정강 포기를 통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낸 김종민 전 경제수석은 전북 고창이 고향이며, 박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끄는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광주출신이다. 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■ 박근혜 향후 행보

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20일 대선 주자로 선출됨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일단 대선 주자가 된 박 전 위원장의 키워드는 '변화'로 요약되고 있다. 경선 과정에서 박 전 위원장이 보여준 태도는 '불통'이라는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버리려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.

어차로 대선 주자 선출이 사실상 '예상된 결과'였다다는 점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경선 톨이나 일정 등에서 포용의 정치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. 또한, 이번 경선이 사실상

'박근혜 추대식'으로 결론나면서 흥행에 실패하고, 이로 인해 컨벤션 효과가 거의 없게 된 만큼 지지율 제고를 위한 강령하고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.

이에 따라, 박 전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선 주자들과 만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이와 함께 이재오, 정몽준 의원 등 경선에 불참한 비박(비박근혜) 인사들에 대한 '구애'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. 친박(친박근혜)임에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김무성 전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, 이해준 최고위원 등과 만나는 기회도 더 찾아질 것으로 예상된다. 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빛의만평

- 김중두



뭐야? 관심도 없는거야?!

3년 연속 "올해의 항공사상" 수상!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~

신비의 섬 "제주 탐방" 투어

상행기간 : 2012.07.20 ~ 2012.08.31 "버스패키지" 계약금 50,000원

광주공항출발 (아시아나항공) 아시아나항공

왕복 2박3일 (월반호설) 1인 ₩299,000~

*최소인원 : 2명 (제일출발) *광주출발 19:35 / 제주출발 19:35 (광주출) *관람1급 2인실 1인 30,000원 추가

완도항출발 (불루리레) 한일고속

왕복 2박3일 (월반호설) 1인 ₩209,000~

*완도출발 08:00~10:40 / 제주출발 17:50~19:30 *관람1급 2인실 1인 30,000원 추가

목포항출발 (씨스타크루즈) 씨스타크루즈

왕복 2박3일 (월반호설) 1인 ₩199,000~

*목포출발 09:00~13:20 / 제주출발 17:00~21:30 *관람1급 2인실 1인 30,000원 추가

1일 광주공항 출발 - 제주공항 도착 - "환상제주" 피켓팅 이로파우체(배수유점) or 을레(코스) 체험(용문~도두봉) -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

2일 호텔 조식 후 관광 - 성안악유계사 남인의 절집 "선남성" 시음 - 한라산 솔터널 경유 휴메리언생태공원 - 석부작테마공원 - 중식(고동이포럼) - 제주국제공항센터 (선배관광)선상산유점 - 화순꽃지할 생태탐방승강(트레킹) - "칭기스칸의 검은 깃발" 디퓨피크 공연 석식(개별식) -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

3일 호텔 조식 후 관광 - 탐라원(토산품점) - <선배관광>메이킹일인드 or 라스베가스 데저티어기스 산니무술길 경유 - 8~70년대 서울에 모습과 잊혀지는 옛 모습! 신라와나루 - 조랑말승마체험 중식(토종제주돼지고기+숙련+즐거움) - 성암민속마을(전통초기마을체험)

천가지 아름다운이 있는 미한관광지구 **일출랜드** 성산일출봉의 아름다운 자태와 탁 트인 해안절경 **삼지포지** 풍광리 해안도로 경유 - 해녀촌 - 농수산물 쇼핑 제주공항 도착 후 피켓팅 - 광주공항 도착

크라운오래테라스 + 스키야일 [숙소] 관광호텔 2인1실/조선제공 **주중 ₩449,000~ / 주말 ₩539,000~**

블랙스톤or세인트로 + 라온 [숙소] 라온리조트 - 식사불포함 라온골프텔(4인1실) - 식사불포함 **주중 ₩519,000~ / 주말 ₩609,000~**

제주도골프투어=항공골프패키지 (1박2일)

포항시향: 황해항공, 그린리 3종, 골프벨트 호텔 1박, 499리, 112리 사용(기타) 식사포함

포항시향: 캐디, 카피, 4인, 무료호텔(7명)은 24,200원

제주 모든 골프장 예약가능하다. 전라문의 주선사!

(4인여성1조출발)

여행사 파트너 모집 광주/전남 T.062-675-0064 담당: 공지혜 대리

광주광역시 동구 규남로 5가 127번지 금호종합금융 4층 | 제주 T.1600-4800 서울 T.02-6404-4708 부산 T.051-469-7030 대구 T.053-425-0747

환상제주 여행문의

하이센스여행사 350-6222

이유여행사 374-1881

메이투어 070-7093-0555

한별투어 956-0045

첨단/투어디자인 974-3050

무등파크여행사 228-7470

동구/다니엘여행사 227-7422